

시론



퇴허자
광주대각사 주지
제주퇴허자명상원장

제주 퇴허자명상원을 아시나요?

제주를 일러 천혜의 보물섬이라고 일컫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한 명예스러운 이름표가 붙었을까? 이미 제주는 2007년 석굴암, 불국사 등과 함께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과 지정공원,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등재되었으며 매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1천500여 만 명을 웃돌고 있다. 해발 1천950m의 한라산을 중심으로 인구는 채 80만 명에 이르지 못하지만 넓은 서울의 3배에 육박하며 무궁무진한 해산물과 감귤, 용과, 무를 비롯해 예전과 달리 제주민들의 경제적 수준은 날로 급상하고 있다. 그야말로 '흔저 읍저에! 놀멍 쉬멍 걸으멍 올레길도 걷고 해녀들의 물질하는 모습도 구경하고 조랑말도 타볼서에!' 그 뿐만이 아니라 볼거리, 놀거리,

머거리 등 신바람 3종세트가 항상 넘쳐나는 탐라국 제주를 구경하지 못한다면 사후 열라대왕 앞에서 무슨 말로 전생사를 답변할 수 있겠는가? 자고로 제주는 '삼다도'라 하여 '돌과 바람, 여자'가 많다고 했지만 이제 그 말은 접어두고 '삼보도(三寶島)'라는 멋진 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 삼보도란 '돌(현무암)과 바람(영등할망), 물(삼다수)'을 의미하는데 육지에서는 염두도 낼 수 없는 보물이다. 필자는 지난 2012년 1월에 입도해 어느덧 만 10년을 넘기고 있는데 위암수술 후 모든 후유증을 말끔히 극복하였으며, 씩씩한 노년을 견행(健幸)으로 보내고 있다. 한라산 등정과 올레길 전구간(27개코스)을 걸었으며, 파라비오를 비롯한 70여개의 오름을 등반한 데 이어 승마운동도 8년 동안을 지속하였다. 오죽엔 서각(書刻)과 퍼즐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요컨대 노년일수록 '소일거리'를 놓아서는 안 된다. 특히 서각을 통해서 전지 회 꿈을 그리고 있으며 퍼즐게임을 통해서는 그 짜릿한 순간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또 얼마 전에는 실버스타 오디션에 참여해 '아직도 세상은'이라는 독립영화에도 출연했는데 9월 중순쯤 시사화를 앞두고 있다. 인생의 3가지 보물은 보람을 위해 일하고 재미를 위해 놀고 편안함을 위해 쉬는 것이다. 아마추어는 이 3가지를 따로 따로 하지만 프로는 인생3보를 한꺼번에 수행한다. 일하고, 놀고, 쉬는 것을 동시에 한 다발로 엮어서 자신의 소일거리에 투자해 보람과 재미와 편안함을 동시에 즐기는 것이다. 처음엔 쉽지 않지만 자주 하다보면 어느덧 프로(주인공)가 된다. 명상(冥想)은 호흡과 집중과 치유와 깨달음이다. 명상을 영어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메디컬, 곧 치유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명상수련을 통해서 건강할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명상을 수행하면 호흡이 깊어지고 집중력이 생기면서 차분해지고 잡병이 치유됨과 동시에 모든 의문이 저절로 사라진다. 나는 평소 "건강을 믿지 말라. 건강은 믿을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자신의 건강을 과신(過信)하게 되면 반드시 큰

작은 코 모두 다친다. 뒤늦게 후회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필자 역시 젊은 시절에 합기도 관장을 하면서 무술로 다져진 몸이라 내 건강을 너무 믿었던 탓으로 위암(胃癌)선고를 받고 위를 수술로 도려내는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남들은 '위암수술'을 쉽게 말하는 이도 있지만 막상 본인이 스스로 체해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수술 후 1년 동안 죽을 먹었더니 정말 '죽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에서 나온 말인 줄 그때야 깨달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소일고 외간간 고치는 사람은 어리석다. 서귀포 성산을 신봉리 퇴허자명상원은 제주 각기다 멤버들과 종종 찾아오는 명상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인문학 음식강의도 하고 인생생담도 나누는 곳이다. 인생분담(人生本無答)이라 우리 인생은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진장의 답'이 있다. 헬렌켈러는 이를 두고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社說

보호종료아동 지원체계 강화 광주시의 약속

광주에서 보육원에서 자란 뒤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해마다 100여 명, 전국적으로는 2천5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고아'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堂堂하게 지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그동안 소홀했거나 또는 외면한 측면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우울과 불안에 시달려도 의지할 곳이 없는 게 특히 힘들다고 호소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보다 크다. 홀로서기가 정말 버겁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명 중 1명 꼴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성장과 자립, 동행의 3가지 방향으로 광주시의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비장애 10대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과 관련해 약속한 대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역 공공기관과 아동보호시설 간 동행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심리치료, 건강, 체육프로그램 등 성장과 심리안정을 도모하며 보호시설에서부터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다. 또 주거 걱정 없는 100% 자립지원 환경을 만든다. 전담기관과 공동자립생활관, 한국도지주택공사(LH)가 주

성한 주거시설 90호에 도시공사가 올해 60여 개소를 추가해 모두 150여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의지할 곳 없이 홀로 고민하고, 외치고 싶어도 어디에 외쳐야 할지 몰라 자신 안에서 메아리가 되어버린 그 외로움과 고통을 우리사회가 끝내 눈치 채지 못했다"면서 "근본적 고민과 동행에 부족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가족과 헤어져 외롭게 자란 젊은이들이 자립준비과정에서 다시 한번 절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긴급히 지시했다. 광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민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각인시킨 비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약간의 자립지원금만으로 어렵도 없다. 보다 꼼꼼하고 충분하게 경제·심리적 지원이 제공돼야 할 것이다. 미처 파악되지 못한 돌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사회가 지속해서 보살피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기대 하겠다.

근절되지 않는 원산지 위반... 처벌 강화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광주·전남 하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업체는 2022년 41곳, 2021년 36곳, 2020년 24곳, 2019년 51곳 등으로 최근 4년 간 152곳에 달했다. 일례로 광주 서구 소재 한 업체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오스트리아·스페인산 양념패지갑비를 국내산으로 팔았고, 목포의 한 음식점은 호주산 소갈비를 배달 앱과 업소 메뉴 게시판에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물량은 각각 38과 1.6t, 부당 이득액은 2억원과 4천만원 가량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원산지를 속여 파는 기만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9월10일)을 앞두고 최근 한 달여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한 결과, 광주에서는 거짓표시 5곳과 미표시 3곳 등 8곳, 전남에서는 거짓표시 22곳과 미표시 11곳 등 33곳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등 명절 전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다면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우리 농산물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불·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뜰이나 날마다 오르는 물가에 도시민의 경제 사정도 악화되고 있다. 국산을 속아서 구입한 경우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국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보다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필요하면 양형 활동도 확대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해지는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 조치도 강화했으면 한다. 언제까지 열도당도 않는 기만적인 보도를 접해야 하나. 먹거리를 돈 벌이로만 여겨 양심을 저버린다면 영구 퇴출시켜 본보기 삼아야 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을 준비하는 것까지 작정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청정 지역에서 자란 우리 농수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자치칼럼



김병도
前 대통령소속자치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정보통신기술 활용해 직접민주주의에 더 가까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나아가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은 민의의 정확성, 시의적절성을 담보하는데 좋은 도구다. 특히 지방자치 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는 가능하면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후보는 출마회견에서 "전자 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 지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화두로 던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은 지역적인 어려움과 규모의 문제 때문에 직접 모여 결정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작동했던 것", "이제는 통신·교통 수단이 발달해 국민·대중의 당원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서 그 의사에 따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도 있다. 배타적인 '팬덤정치', 강성층 중심의 '과잉대표' 등이다. 이는 소수의 극단적인 사례를 짐소봉대한 것이다. 특수한 상황 또는 과도기적 실패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공화제는 헌법에 따라 국민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헌법 제1조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규정하고 있다. 오직 국민만이 권력자다. 헌법 조문에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오직 딱 한 번 나온다. 정부,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노골적 가사나 정치인들의 혼란 레토릭으로 헌법 제1조가 쓰이고 있는 형국이다. 어떤 영화에서 '국민을 개·돼지'

로 표현했다. 국민을 올바른 상식과 가치판단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는 기독교의 입에서 나온 언어였다. 과연 우리는 그런 수준의 국민이고 국가인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국민과 국가를 뽑으려고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과 대한민국을 뽑을 것이다. 5천년 동안 민주주의를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었다. 배고픔을 벗어나지 못했던 흑한 상황에서 3만불이 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우리는 무엇이든 시대가 품은 문제를 해결해 낸 국민이고 국가다. 지금 우리 대의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국민이 이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파의 이해가 국민의 이해에 앞서고, 사회적 가치보다 권한을 가진자의 이해가 우선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치권은 마치 되돌이표 같다. 정치가 사라진 사회다. 내 삶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정치권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권은 모든 사안을 정치적 대화와 타협, 조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기대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법부가 입법부의 의사결정 상 위기관처럼 보인다. 사법부의 결정을 두고 입법부는 또다시 정치적 갑론을박에 휩싸인다. 되돌이표다. 결국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국민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정치권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당장 필요한 제도나 개선하지 못한다. 그 후과는 모두 국민 부담으로 다가온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밀리고 정치권에 의해 헬조선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 국제질서변화, 사회문화변화, 경제환경변화 등 변화의 시대에 능동적인 대처만이 도약하는 국가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독자투고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과지 수거하는 노인 안전이 우선이다

대도시 생활주변에서 흔히 새벽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대에 리어커를 끌고 다니며 파지를 줍는 노인들을 볼 수 있다. 차가 썩썩 달리는 도로위를 리어커를 끌고 가는가 하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많다. 필자도 직업상 새벽에 출근을 하는 관계로 종종 이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특히나 커브길이나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볼수록 리어커와 마주치게 될 때면 일순간 움찔 당황하게 된다.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여건에서 파지를 줍는 노인들은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운전자는 물론 파지를 줍는 노인들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파지를 수거하는 노인들은 고령이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리어커 운전이 쉽고 적재된 많은 폐지 운반이 쉬운 자동차 도로로 이동하는 경우도 상당해 인명사고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시력 및 청력이 떨어진 노인분들의 경우 그만큼 도로위의 차량에 대한 순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에서도 순찰중 마주치는 이들 노인분들에 대해 야광밴드나 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파지를 줍는 노인분들 자신부터,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부터 적극적인 위험성 홍보로 더 이상 안타까운 후진국형 사고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운전자 또한 큰 대로변은 물론 골목길이나 길모퉁이를 운전할 때에

도 항상 방어운전 자세를 갖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어두운 밤거리에서 무거운 리어커를 끌고 파지를 찾아 헤메고 있는 노인분들이 있다. 더욱이 최근엔 파지를 줍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노후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지만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의 생활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몫이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명절 이용한 출처 불분명 택배 문자 주의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평소 고마웠던 지인이나 친지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때 주로 택배를 이용 하게 되는데 이를 악용한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도 스미싱 전체 신고 건수 약 20만 건 중 택배 사칭 스미싱은 약 17만 건에 달하는 등 택배 사칭

스미싱 유형이 전체 스미싱의 85%를 차지했다. 특히, 명절은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로 택배 사칭 스미싱이 활개를 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휴대전화 사용자라면 '귀하의 물품이(송장번호 53****)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보관 중입니다.', '지연된 택배 물품 조회' 등과 함께 송장번호 확인/인터넷 주소(URL)가

적힌 택배 문자를 한 번 정도는 받아 봤을 것이다.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등의 문자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선물 배송 조회나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과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김창희·곡성경찰서 경무계장>

스미싱 차단 앱 등을 설치해 사기로 의심 되는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사이트는 접속하지 않는 게 상책으로 개인정보 요구는 사기 소행일 확률이 높다. 또한 선물 배송 조회나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과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김창희·곡성경찰서 경무계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물어는 詩

흙에게

문희숙

사랑아, 나는 한 잔 무지갯빛 각테일
번덕번덕 신만이 가진 레시피로 빚어낸
만 조각 겨울 속에선 내가 나의 슬래지



사랑아, 나는 태양에 묶인 작은 별새
상해 갈 생을 위해 미친 날개 허공에 매단
가벼운 하루를 위해 눈물마저 말린 새

계절은 유령처럼 사라지지만, 사랑아
유적지 이 빠진 흙사발의 고집도
또 한 줌 흙더미 되어 저 물에 쓸릴테지만,
(시집 '사랑은 주소 없이도 영원히 갈 집이다', 시와소금, 2022.)

[시의 눈]

흙을 '무지갯빛 각테일'로 보는 눈, 그렇게 채색하는 손이 아름답습니다. 나뭇가지처럼 버무려 간이 뻗어갈 간 손, 아재춤을 우려낸 푸른기름의 눈, 그건 날마다 흙을 버무리는 어머니의 손과 나중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흙의 열매와 각테일을 먹지요. 흙은 '레시피'를 도마에 올립니다. 푸성귀를 식탁에 오르게 하기까지 참 공적이 많았구먼요. 정마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곧 '유령처럼 사라질' 테지요. 한방 목우에 휩쓸린 '이 빠진 흙사발'은 어디로 갔을까요. 강 둔덕 그 곡소리가 들리는 처서입니다. 그가 흙탕물에 잠겨 다시 흙으로 돌아가려는 은근한 사랑을 난 이미 알고 있었습니디. 문희숙 시인은 밀양에서 나, 1996년 중앙일보백밀장으로 등단. 시조집 '짧은 밤 이야기'(2016), '동근 그림자의 춤'(2017)을 펴냈습니디. 그는 언어비늘에 꿰는 역린의 칼날이듯 이면의 원생태로 돌리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광고부 650-2072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가)1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